

<NECA 공명: 반일치 혈연이식, 해외기증자 이식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>

**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공동 합의문**

□ 2018년 11월 8일,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개최한 제1차 원탁회의 「NECA 공명」에서 반일치 조혈모세포 (혈연)이식에 관한 대규모 후속연구 수행 여부 및 연구 범위, 고려사항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합의내용을 도출하였다.

**1. 해외기증자 이식과 국내기증자 이식의 성적 차이는?**

-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대상 질환 중, 국내 발생 빈도가 높은 4개 질환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,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, 만성 골수성 백혈병, 재생불량성 빈혈이다.
-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, 해외기증자와 국내기증자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성적(생존율, 부작용 등)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국내기증자가 없어 해외기증자 이식을 받을 경우 약 5,159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.

**2. 국내 반일치 혈연이식이 해외기증자 이식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?**

-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결과 및 임상적 경험에 따르면, 반일치 혈연이식과 해외기증자 이식 성적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.
- 따라서 조직적합성이 일치하는 이식원을 찾기 어려울 경우 반일치 이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, 이는 이식 대기시간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.
- 단, 일부 혈액질환(혈액암 등)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.

**3. 국내 반일치 혈연이식의 임상적 효과 평가를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한가?**

- 국내 반일치 혈연이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, 국내 반일치 혈연이식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최신 근거를 생성하고 환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.
- 현재 근거를 바탕으로 후속연구 설계 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.
  - 1) 반일치 혈연이식에 대한 환자 코호트 구축
  - 2) 공여자의 연령, 이식 시점, 환자의 기저질환 등이 이식에 미치는 영향 고려
  - 3) 질환별 이식 성적 비교를 위한 하위그룹분석 수행
  - 4) 경제성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논의의 근거자료 제시\*
    - ※ 단, 연구기간 중 반일치 이식의 보험급여 논의가 진전될 경우 ‘조건부 급여’를 우선 적용하고, 급여 심사 시 연구결과를 근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

※ 본 합의문은 상단의 6개 기관이 공동 합의한 내용이며, 문장 일부만을 발췌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